

국 어

1.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달걀 껍데기를 깨다.
 ② 바위에 굴 껍데기가 딱딱하게 붙어 있다.
 ③ 처음으로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었다.
 ④ 조개껍질을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었다.
 ⑤ 나무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었다.

2.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표준발음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 깃발이 바람에 날린다. - [기빨]
- ㉡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 [불법쩍]
- 나는 오늘 점심을 ㉢ 면류로 간단히 때웠다. - [멸류]
- ㉣ 도매금은 도매로 파는 가격을 말한다. - [도매금]
-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한다면 ㉤ 공권력 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 [공:꿌녁]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사용이 옳은 것은?

- 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② 스스로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다.
 ③ 우리 명산에는 곳곳에 사찰이 깃들여 있다.
 ④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아주머니도 참 주책이서.
 ⑤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4. 다음 중 사이시옷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아랫집, 벗가리, 선짓국, 땃가지, 가게집
 ② 화젯거리, 수랏간, 풋말, 나뭇잎, 연둣빛
 ③ 꼭짓점, 횃배, 킷값, 구뭇발, 공기밥
 ④ 버드나뭇과, 장땃과, 붓둑, 무싯날, 쇳조각
 ⑤ 개수, 귀갓길, 사삿일, 시래깃국, 노잣돈

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V녀석V고마워하기는V커녕V알은체도V않더라.
 ② 짐채V만한V과도가V몰려온다.
 ③ 한V번은V네거리에서V큰V사고를V낼V뻔했다.
 ④ 보잘것없는V수입이지만V저는V이V일이V좋습니다.
 ⑤ 김V양의V할머니는V안동V권V씨라고V합니다.

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구석엔 불만과 불평이 퇴적(堆積)돼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② 그 선수는 스카우트 파문(波紋)에 휩싸여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③ 도전자는 통쾌한 KO승을 거두겠다고 기염(氣焰)을 토하고 있다.
 ④ 명나라 군사를 움직여서 왜적을 소탕(掃蕩)하였다.
 ⑤ 진주에서 덕유산까지 들어가기엔 적잖은 애로(隘路)가 있었다.

7.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은?

민주 국가는 국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 국가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로 운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소수의 이익을 위해 운용된다면 다수가 불만을 가질 것이며, 정책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다수가 제대로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기 쉽다.

옛날 아테네에서는 자유민이 모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 나라 국민 전체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 전체가 참여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설령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다수를 만족시킬 뿐이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대부분 국민들이 판단하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는 소수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 ① 소수가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의 뜻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② 소수가 정책을 결정하되 민주 국가이므로 다수의 뜻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③ 정책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계층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정책 결정의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다.
 ⑤ 정책의 정당성은 결국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판명되므로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8. 다음 작품의 화자가 지닌 정서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前腔 내념을그리스와우니다니
 中腔 山점동새난이슴흐요이다
 後腔 아니시며거르르신돌아오
 附葉 殘月曉星이아르시리이다
 大葉 너시라도님은흔더져라아오
 附葉 버기더시니뉘러시니잇가
 二葉 過도허물도千萬업소이다
 三葉 물헛마리신더
 四葉 술웃븐더아오
 附葉 니미나를흐마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님하도람드르샤괴오쇼셔

-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 님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 무심한 달빛만 싹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② 내 일 망녕된 줄 나라 하여 모를 손가 /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
한 탓이로세 /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해아리소서
- ③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
가에 앉았으니 /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뵈다
- ④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하노라 / 주려 죽을진
들 채미(採薇)도 하는 것가 / 비록에 푸새엿것인들 그 뉘 땅에
났나니
- ⑤ 흥망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 오백 년 왕
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계워 하
노라

9. 다음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 ㄱ. 우선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ㄴ. 또한 교육 목표가 대학 입학에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ㄷ.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ㄹ. 한 교실에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앉아 교육이 제대
로 될 리 없다.
 ㅁ. 즉 교육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ㅂ.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짜인 우리 중등 교육 제도에 꼭 필
요한 말일 것이다.
 ㅅ.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ㅇ.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본래의 교육 목표에 충실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① ㄱ-ㄴ-ㄱ-ㄱ-ㄱ-ㄱ-ㄱ-ㄱ-ㄱ-ㄱ
- ② ㄱ-ㄴ-ㄴ-ㄱ-ㄱ-ㄱ-ㄱ-ㄱ-ㄱ-ㄱ
- ③ ㄱ-ㄴ-ㄱ-ㄱ-ㄱ-ㄱ-ㄱ-ㄱ-ㄱ-ㄱ
- ④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 ⑤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10. 다음 중 서간문에 사용하는 호칭이나 직함 밑에 붙여 쓰는 말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평교간(平交間)에 서로를 이룰 때 - 仁兄
- ② 자신의 글을 보아주는 사람을 높여 이룰 때 - 淸覽
- ③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글을 보일 때 - 下鑑
- ④ 남의 부모를 높여 이룰 때 - 高堂
- ⑤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룰 때 - 尊堂

11. 다음 작품에서 밑줄 친 ㉠과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
기는 ㉠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냄새 창창
한 그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
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 물방울
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아래 보았을까나. 그
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에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 ㉠ | ㉡ |
|----------|----------------|
| ① 가냘픈 심사 | 아름답게 빛나는 추억 |
| ② 순간의 행복 | 부서지기 쉬운 내면의 감정 |
| ③ 순수한 사랑 | 슬픔과 눈물이 담긴 그리움 |
| ④ 간절한 소망 | 자신의 희생이 가져온 결과 |
| ⑤ 덧없는 희망 | 잠시의 설렘이 가져온 환희 |

12.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명종과 가지고 있는 의기를 보고 싶다 하여 누누이 청하
니, 여러 번 청탁하다가 사람을 불러 한 가지 것을 내어 왔
다. 나무로 집을 만들었는데 네모지고 길이는 두어 뼘이요,
안에 주석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자명종 모양이었다. 전면에
시각이 나누어진 숫자를 새기고 밖으로 유리를 붙여 문을 열
지 아니하여도 속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밖으로 열쇠 같은 것을 걸어 놓았는데 송령이 그 열쇠를 가
지고 구멍에 넣어 서너 번을 돌렸다. 손을 떼어 놓자 위에
달린 종이 울리는데 반향이 그치지 아니하여 그 수를 헤아리
지 못하고 매우 요란하였다. 이것은 이름이 ‘요종’인데, ‘요란
한 자명종’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 일어나고자
하는데, 혹 시각을 몰라 잠을 제때에 깨지 못할까 하여 저녁
에 잘 때에 시각을 짐작하여 상 아래에 틀어 놓으면 제때를
당하여 고동이 열리고 요란한 종소리로 사람의 잠을 깨우게
하는 것이었다.

- ① 묘사와 논증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 ② 분석과 설명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 ③ 묘사와 비교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 ④ 분석과 논증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 ⑤ 묘사와 설명의 글쓰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가 ㉠그믐달과 가장 유사한 것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쭉레처럼 살아라 한다
 쭉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① 밤에 홀로 유리(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나/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②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
 어 손에 손을 잡고
 ③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
 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④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이 그에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20. 다음 (가)~(마)의 글을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

- (가) 누군가 발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려쬘 곳엔 녹기 시작하여 신발 끝에 벌정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달이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작달막했다. 그는 뽕뽕하게 불러오른 땀방울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메고 머리에는 개털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검게 물들인 야전잡바의 깃 속에 턱이 반남아 파묻혀서 누군지 쌍둥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 (나) 그가 녀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 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 (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볕 아래 햇볕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소리가 먼 데서부터 돌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하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심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 (라) 그는 털모자를 잠근 단추를 여느라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러고나서 비행사처럼 양쪽 뺨으로 귀가리개를 늘어뜨리면서 병긋 웃었다.
 “천가란 사람, 거품을 물구 마누라를 개패듯 때려잡던데”
 영달이는 그를 쏘아보며 우물거렸다.
 “내..... 그런 촌놈은 참”
 “거 병신 안됐는지 몰라. 머리채를 질질 끌구 마당에 나와선 차구 짓밟고..... 야 그 사람 환장한 모양이더군”
 이젠 누구 엿먹이느라구 수작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끈 했지만 영달이는 애써 참으며 담뱃불이 손가락 끝에 닿도록 주욱 빨아 넘겼다.
- (마) 그는 몇 걸음 남겨놓고 서더니 털모자의 책을 이마쪽에 붙도록 척 올리면서 말했다.
 “천씨네 집에 기시던 양반이군”
 영달이도 낮이 익은 서른 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공사장이나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가끔 지나친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아까 존 구경 했시다”

- ① (가)-(마)-(라)-(다)-(나)
 ② (나)-(가)-(다)-(라)-(마)
 ③ (나)-(가)-(마)-(라)-(다)
 ④ (다)-(나)-(가)-(마)-(라)
 ⑤ (다)-(나)-(마)-(라)-(가)

21.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떼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 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각국에서는 사롭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문져 비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디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하는 까들에 국문을 잘하는 사롭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하니 첫지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돌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빅스를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 어보기가 쉬홀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한 까들에 국문만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려보지못 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하리요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첫지는 말마디을 떼이지 아니하고 그저 줄줄이려 쓰는 까들에 글즈가 우회 부터는지 아려 부터는지 몰나서 몇번 일거 본후야야 글즈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 편지 훈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조 아니 쓰는 고로 서툴어서 잘못봄이라 그런 고로 정부에서 너리는 명녕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 즉 한문못하는 인민은 나모 말만 듯고 무슴 명녕인줄 알고 이편이 친이 그글을 못 보니 그사롭은 무단이 병신이 됴이라 한문 못 혼다고 그사롭이 무식한사롭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잇스면 그사롭은 한문만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업는 사롭 보다 유식하고 높흔 사롭이 되는 법이라 조선 부인네도 국문을 잘하고 각식 물정과 학문을 비화 소견이 높고 형실이 정직하면 무론 빈부 귀천 간에 그부인이 한문은 잘하고도 다른것 물으는 귀족 남즈보다 높흔 사롭이 되는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 귀천을 다름업시 이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니지 스정을 알게 하라는 뜻시니 남녀 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호로 걸너 몇돌간 보면 새지각과 새학문이 싱길걸 미리 아노라.

- ① 한글의 띄어쓰기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한글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 ③ 한글을 통해 빈부 귀천의 차이를 없앨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한문에 비해 한글(국문)이 나은 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⑤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신문을 보기 쉽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22. 다음 글에 서술된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 비장은 궤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남편으로 가장한 방자가 꿈 이야기를 하며 궤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러 바다에 버리는 척 꾸민다. 배 비장이 알몸으로 썩 나서며 그래도 소경 될까 염려하여 두 눈을 잔뜩 감으며 이를 악물고 왈각 뱀다 쪼으면서 두 손을 해우적해우적하여 갈 제 한 눈이 나서며 이리 해자, 한참 이 모양으로 헤어갈 제 동헌 대뜰에다 대궁이를 딱 부딪히니 배 비장이 눈에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뜨며 살펴보니, 동헌에 사또 앉고 대청에 삼공형(三公兄)이며 전후좌우에 기생들과 육방관속 노령배(奴令輩)가 일시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참는 것이 웃음이라. 사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 저것이 웬일이고?” 배 비장이어이없어 고개를 숙일 뿐이더라.

- ① 작중 인물이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② 배 비장은 자신이 실제로 궤 속에 갇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 ③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연극을 하고 있는 셈이고 중심 인물만 진지한 상황이다.
- ④ 배 비장이 웃을 입지 않은 것은 인물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정작 중심 인물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23. 다음 글의 밑줄 친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1776년 6월 3일, 폭우가 쏟아지며 캄캄해졌다.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온 식구가 모두 밥을 굼었다. 네가 이를 알고는 기쁘지 않아 상을 찡그리더니, 이 때문에 병이 더 극심해졌다.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자 갑자기 네가 숨을 거두었다. 늙은 아버지는 흐느껴 울며 부자와 형제가 이에 세 번 곡하였다. 천하에 지극히 애통한 소리다. 너는 이제 영원히 잠들었으니 이를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 …… 평시에는 남들과 말할 적에 형제가 몇이나고 물으면 아무개와 아무개 넷이 ㉠동기라고 하였더니, 이제부터는 남들이 물으면 넷이라 할 수가 없겠구나.

- | | | |
|------|------|------|
| ① 同起 | ② 同氣 | ③ 同期 |
| ④ 童氣 | ⑤ 童期 | |

※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효종랑이 남산 포석정에서 노닐 때 문객들이 모두 급히 달려왔으나, 오직 두 사람만이 뒤늦게 도착했다. 효종랑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다.

분황사 동쪽 마을에 딸아이가 사는데, 나이는 20살 전후였습니다. 그 딸이 눈먼 어머니를 껴안고 서로 통곡하므로 같은 마을 사람에게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딸아이는 집안이 가난해서 빌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흉년이 들어 결식조차 어렵게 되자, 대갓집에 가서 품을 팔아 곡식 30석을 얻어서 주인집에 맡겨 놓고 일을 해왔습니다. 날이 저물면 쌀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먹은 후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고, 새벽이면 대갓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날에 ㉠강비를 먹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요새 쌀밥을 먹으니 마치 창자를 찢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구나. 어찌된 일이나?”고 했습니다. 딸이 사실대로 말하자 어머니는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딸은 자신이 다만 어머니의 ㉡구복의 봉양만을 신경쓰고 ㉢색난을 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효종랑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더니 측은해 하며 곡식 100석을 보냈다. 낭의 부모도 또한 의복 한 벌을 보냈으며, 수많은 낭의 무리들도 곡식 1,000석을 거두어 보내주었다. 이 일이 마침내 왕에게 알려지자 진성왕은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아울러 군사들을 보내서 그 집을 호위해서 도둑을 막도록 했다. 또 그 마을을 표창해서 효양리라고 했다. 훗날 모녀는 그 집을 회사해서 절을 삼았는데, 절 이름은 양존사이다.

24. 다음 중 위 글의 ㉠,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 ㉡ ㉢

- ① 糠粃—求福—穉難
- ② 康肥—口腹—索難
- ③ 糠粃—求福—色難
- ④ 康肥—救復—穉難
- ⑤ 糠粃—口腹—色難

25. 다음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행설화가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 ② 당시 노동 계약관계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 ③ 신라 시대에는 민간 가옥을 바로 절로 삼기도 하였다.
- ④ 가난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 ⑤ 아버지의 마음을 화평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의 본질이다.